문홍길 / (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by Moon Hong-Gil

이젠 기본을 생각할 때 (變卽生 不變卽死)

Now, We have to Arrange the Start Line

이성적 접근

이 글은 이성적으로 접근, 시작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간의 건축관련 담론들이 감성 쪽에 치우쳐 있었다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 건축사들이 매우 감성적이기 때문이리라.

건축은 매우 어려운 분야이다. 예술(감성)과 기술(이성)의 결합체라는 건축을 직접 수행해 나가는 건축사(가)들은,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통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건축가하면 예술 지향적 전문가, 건축사하면 국가가 인증한 경제 지향적 기술자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대외적으로도 건축가협회는 예총에 속해있는 예술적 · 선험적 창의집단, 건축사협회는 기술적 · 제도적 기술집단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좀 더 구조적으로 보면, 건축사(가)들은 우리 내부에서부터 예술과 기술을 통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 집단은 제도 · 기술 · 시장과 관련된 분화된 분야의 전문화 소임을 다 하고 있는가?

외부의 흐름들

먼저, 밖으로 눈을 돌려 건축계 모든 부분 주체들의 움직임 중 필자의 눈에 잡힌 일부를 적어본다.

관련 정책 주체들은 부동산 투기-가진 자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를 잡기 위해 패러다임 전환기적 수단을 차근차근 연구 · 실행중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들은 GDP의 큰 부분을 담당한다는 논리로 건설산업의 급랭을 막기 위해서 시장경제의 틀에 맡겨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초기 공약에 비해 규제책이 약하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에서는 국제적 기준에 맞춘 경쟁력 확보를 위해 5년제, 4+2년제로 커리큘럼을 변경하고, 인증원 체제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생 취업난과 설계사무소의 고질적인 저임금으로 인해 당황하고 있다.

한편, 감리협회는 CM영역, 건기법 감리 등 업역 확대를 위해 차근차근 제도화하고 있는 능력이 돋보인다. (특히 최근 정부가 강력한 재건축 억제책을 시행하면서 사업추진이 까다로워지고 수익성도 불투명해지자,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CM을 새로운 업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 사협회는 감리관련 실무활동의 핵심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불협화음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실에서 필자는 현재 협회-혹은 우리 건축사 개개인-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우리 내부를 돌아보려 한다.

대가없는 품질 없다

세상에는,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공짜란 없다. 대가없는 품질은 없다. 다만, 대가없이 품질이 높은 것도 존재하는데, 이는 문화행위, 혹은 자기만족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나 사람이 그러하다면, 이는 경제적 ·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F-낙제점으로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또는 바보이거나 사회사업가이리라.

계획설계, 혹은 사업성 검토는 보통 대가없이 공짜로 해 주는데, 이 공짜로 해 주는 주체가 바로 우리 건축사이다. 고로 건축사도 제정신이 아니거나 사회사업가 계열이다. (사실이다. 많은 강자들-우리에게 order를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거절하고 해 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웃으면서, 이 정도는 서비스 차원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스스로 자위한다. 이는 필자가 무수한 경우를 당해본 후의 결론이다. (만약 어쩔 수 없다면 품질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수많은 계획과 검토를 하지만, 대부분은 상대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 이는 정보에 어둡기 때문이며, 게다가 건축사 집단은 전문가 집단으로 기술력과 품질이 높기 때문에 사기치기 딱 좋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처음에도 말했듯이 건축은 예술과 기술의 복합분야이다. 예술과 관련된 분야의 특성상 건축인들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지금도 건축인들은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공통의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개인주의가 집단주의보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파편화된 개인주의로 인해 받는 개개인의 불이익을 얘기하는 것이다) 물론, 시장경제하에서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경쟁상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변협, 의협은 무엇이 우리 협회와 다른 것일까? 왜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마저 빼앗긴 채 동료들을 경쟁상대로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

변즉생 불변즉사 (變卽生 不變卽死) – 지금은, 향후는 합리성이 기본이다

이제는 건축계도 변화해야 한다. 우선은, 제대로 일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는 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는 건축에 꿈을 갖고 사회에 발을 들인 신참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다. 당연한 서비스라 생각하는 우리의 땀과 정성이 어린 결과물을 이젠 제대로 대접받게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소리를 내어야 하는 소형 · 중형 · 대형 사무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우리가 그간 모르고, 잊고 지냈던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표현해야 할 것이다.

이때, 건축인의 특성인 개인주의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혹하지 않고 공동의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 협회의 몫이다. 그러나 협회신문 등을 보면 일부 서로를 질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협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공통관심사를 찾아야 한다. 우리 서로는 경쟁상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갈수록 다양화 · 전문화 되어가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구성원들은 전문화를 추구해야 하고, 협회는 구성원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합리성에 기초해야 한다. 다양성과 전문성은 원심력과 구심력처럼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사회가 갖는 필연적인 속성이다. 건축계 내에서의 다양한 목적을 가진 조직, 협회, 학회, 단체 등과 건축인 개개인이 해야 하는 전문화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통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학벌 · 연고 지상주의가 만연한 시스템으로는 이 현실을 돌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통합하되 전문적 뿌리 없이는 단지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다.

만약 합리성을 놓친다면, 협회는 일반적 이익집단으로, 개인적 떼쓰기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건축사들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진정한 합의를 이루어내고, 합리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키워나가는 것이 현재의 어지러운 현실에서 우리 협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앞으로 건축계에는 토지규제개혁이라는 큰 소용돌이가 기다리고 있다. 좀 더 큰 판에서 건축계의 정돈된 목소리를 전달되어야 한다. 대민서비스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건축사들이라는 것을 말해야 한다.

필자는 위에서 우리가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變卽生 不變卽死). 그러나 이것은 어찌보면 변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기본으로 돌아가 합리성의 바탕 위에 선다는 것은 여태 우리가 잊고 지낸 가장 원초적인-그러나 너무도 당연한- 원리인 것이다. 두렵다. 협회가,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우리 내부의 문제로만 아웅다웅하면서 밖으로 눈을 돌리지 않은 채 집단의 고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죽는다. 이는 생태계의 진실이다. 남 탓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다. 해서 나 자신부터 어떻게 변하고, 나를 제외한 외부에 어떤 기여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평소 생각만으로 맴돌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은 아닐까.